

상고사 고조선의 실체를 밝힌다

고조선 나라의 수도는 어디에 건립되었는가? 고조선 나라의 광대한 영역은 고조선 수도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장된 것인가? 아니면 외부로부터 청동기를 사용하는 단일민족이 유입되어 국가를 이룰 만큼 넓은 영토에 퍼져서 살게 된 것인가? 고조선 세운 구성원은 어느 혈통의 민족인가? 다시 말해서 민족의 대이동에 의한 도래인들이 고조선을 건립했는가? 아니면 원주민들이 대대로 정착해오면서 씨족사회를 이루고 부족사회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형성한 것인가? 먼저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찾아야겠다. 그래야 고조선을 세운 한민족의 실체를 밝힐 수 있고 고조선 문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다.

지금으로부터 3천 2백 년(기원전 1200년) 전에 알타이산맥 근교에서 단지와 민족이 100여 년간 우거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인구수가 수십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제사장 이끄

는 대로 서아시아 지중해 동남쪽 연안에 위치한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출발하여 동방 해돋는 곳으로 이동해 왔다. 단지와 민족의 문화적 특징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며 지중해의 해양 민족인 블레셋과 200여 년간 전쟁을 치른 직후에 동방으로 이주해왔기에 청동검을 제작할 수 있는 우수한 대장장이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중국식 동검은 기원전 11세기(기원전 1100에서 기원전 1000년까지)에 처음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단지와 민족의 청동검 제작 기술이 중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상정할 수 있겠다. 오르도스 지역의 청동검도 북방 세력을 구축한 단지와 민족의 청동검 제작 기술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알타이산맥 주변과 광활한 몽골초원에서 활동한 단지와 민족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에, 다만 청동검의 원조는 북방 초원에 활약하던 유목민 집단에서 나온 것으로만 안다. 오르도스 동검을 포함한 중국식 동검은 이스라엘의 청동검과 비교하면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다.



한민족의 기원이 되는 단지와 민족은 천손 민족이기에 천신이 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졌고 단지와 민족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조선의 수도 자리를 대동강변에 정한 것이다. 알타이산맥 근교에서 단지와 민족이 100여 년간 거주할 때 인구수가 수십만에 달했기에 빠르게 몽골초원 일대와 요녕성 일대로 퍼져나갔고 특히

요녕성에 도착한 단지와 민족은 그곳에서 기존의 이스라엘 청동검과 모양이 다른 비파형 동검을 창안하고 제작하여 동이족 분포 지역에 보급하게 되었다. 【그림②】를 참조하면 동이족이 되는 단지와 민족은 몽골 대초원을 거쳐서 요녕성에서 산둥반도까지 진출하였고 또 요녕성과 만주에서 한반도 일대로 진출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③】은 중국의 한무제에 의해 천년의 고조선 국가가 멸망당하고 한사군 가운데 낙랑군이 고조선 수도(대동강 유역)에 설치된 것을 보여준다. 4백여년간(BC108~AD313) 동안 유지되었지만 고구려에 의해 수복되었다.



2025년 여름철 태풍 경로도

6월 11일에 발생한 <제1호 태풍 우뚝>으로 시작하여 8월 21일에 열대폭풍으로 일본 가고시마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2호 태풍 링링>까지 올해 6월과 7월, 8월 등 3개월 동안 열두 차례의 태풍이 있었지만 한반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2025년 여름철 태풍은 우리나라에 근접조차 못했지만, 9월과 10월에 발생하는 가을철 태풍에 대해서 만만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7]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죽는다”

오늘날 사람이 죽는 것은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피가 썩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가 없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피가 썩을 수 없는 비결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질, 탐심, 미워하는 마음이나 감정을

부리지 않아도 피는 썩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려면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면 감정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피가 썩는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피를 썩게 하는 근본이 되는 나라의 주체의식을 없애는 비결인 자유율법을 시간 시간 논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삶

복을 부르는 얼굴 만들기

예절이 몸에 밴 사람은 표정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을 수가 없다. 한없이 낮아진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되 비굴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된다. 사람이면 누구나 닳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수양이 되어 있어야 한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화가 났는지, 슬픈지, 걱정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결국 표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좋은 표정, 밝은 표정은 복을 부르게 된다. 찡그린 얼굴을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는 웃는 얼굴로 물건을 파는 사람 것을 사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복을 부르는 좋은 표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하여 알아보자.

좋은 표정을 만들려면 얼굴 전체를 부드럽고 온화하게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긴장하면 얼굴의 근육이 긴장되어 딱딱한 표정이 되어 상대방이 겁을 먹게 되며 얼굴을 찡그리면 사람이 추하게 보인다. 눈을 곱게 뜨고 시선은 단정하게 한다. 눈을 치뜨면 억눌린 사람 같고, 결눈질하면 상대가 의심해 경계하게 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였듯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투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은 눈빛을 유지할 수 있다. 갈보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방은 자

신을 무시하는 줄바보 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힘을 주지 않는다. 입에 힘을 주면 냉기가 들고 입이 헤벌어지면 허술한 사람으로 보인다. 턱은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한다. 일부러 턱에 힘을 주어 당기면 실속 없이 잘난체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반대로 습관적으로 턱을 치켜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실속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시로 거울을 보며 교정하는 것이 좋겠다.

역지 표정을 짓지 않는 것이 좋다. 마음에 있는 대로 나타내게 해야지 역지 표정을 지으면 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느껴져 오히려 상대방의 비호감을 사게 된다. 그러므로 주위 환경과 경우에 맞는 표정을 지어야 한다. 슬플 때는 슬픈 표정, 기쁠 때는 기쁜 표정, 좋을 때는 좋은 표정을 지어야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갑작스럽게 표정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기분이 상하면 기분 나쁜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온건하고 담담한 표정을 갖는 것이 사람을 진중하게 보이게 한다. 얼굴색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눈빛으로 진정성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표정, 진지하고 그윽한 눈빛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한다. 표정은 그 사람 마음의 표출이다. 표정을 관리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양(修養)이다. 수양이란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다.*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태풍은 동해 바다에서 기역자로 꺾어 돌려 치는 것도 보여주었고 비가 온다고 기역자로 보여주었고 비가 온다고 기역자로 보여주었고 비가 온다고 기역자로 보여주었습니다. 5년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86. 8. 17. 말씀)."

로 우주에 가득 퍼져서 공기를 차갑게 하므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가도 이 사람이 나타나면 찢은 듯이 날이 개이며 비가 오게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 이 사람의 몸이 분신의 역사를 하